

여수 경도 세계적 수준 해양관광단지로

호텔·골프장·케이블카 등 1단계 사업 2024년 완공

11일 첫 삽을 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다. 경도 섬 전체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사들여 개발에 나선 미래에셋그룹 측은 우선 오는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광단지를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 경도(2.15㎢·65만평)는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해양 복합관광단지가 될 것이라고 미래에셋그룹 측은 설명한다. 여수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도 들어서 여수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라는 소기도 빼놓지 않는다.

사업 시행은 미래에셋그룹이 경도 개발을 위해 신설한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맡는다. 한때 사업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경도와 여수 내륙(신월동)을 잇는 진입도로와 연륙교 개설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연륙교가 완공되면 선박을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경도를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연륙교는 연장 1.52km, 폭 13.8m 규모다. 총사업비 1178억원(국비 40%·지방비 40%·미래에셋 20%)을 투입한다. 연밭까지 시공업체를 정해 내년 6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착공식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착공식이 11일 오후 여수시 경도호 경도호텔 건립부지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재 도의회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시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희재·추철현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임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월에는 개설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은 이날 경도 관광단지 착공식에서 “여수 경도를 최고의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해 문화를 간직한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여수를 중심으로 동부권 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도는 2014년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주목받았다. 여

수과 뱃길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데다 경관이 수려해 해양관광단지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해양엑스포 이후 여수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도에 대한 투자 관심도 높아졌고 미래에셋그룹이 전남개발공사에 340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미래에셋은 대금을 2024년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나 올해 4월 3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사업 관할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개발이 완료되면 여수지역에 매년 외국인 관광객 82만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생산유발 효과 2조

2000억원, 고용 창출 1만4000여명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래에셋측은 1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2024년 이후부터 최종 사업 완공시점인 2029년까지의 구체적 개발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광주일보 통화에서 “총사업비 규모 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1단계 사업 완공 이후 최종 단계까지의 사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동적이다”고 전했다. 이는 사업 진행 추이와 국내 관광산업 여건 등을 살펴 사업 내용에 변화를 주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첨단·여수 산단 대개조 사업 노력해달라”

일자리위원회 현장의견 수렴...방향 논의·기업 애로 청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예비 선정 지역인 광주 첨단산단과 전남 여수산단에서 잇달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해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해 지원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올해 5월 올해 공모한 이 프로젝트에 전남(여수)을 포함한 광주(첨단), 경북(구미), 대구(성서), 인천(남동) 5곳이 선정됐다.

일자리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여수산단 방문에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기업인 등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여수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진 1산단과 여수·광양항을 묶어 ‘저탄소·저에너지·저비용 산단’으로 대개조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를 위해 77개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내년에 우선 추진할 산단 대개조 20개 핵심사업을 건의 중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단 중심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산단 대개조 사업을 정부 뉴딜 정책과 연계해 산업 고도화 시

대에 맞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 첨단산단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자부담 완화, 도로 정비, 주차장 확충, 가로등·CCTV 설치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국비 80%·시비 20% 매칭 방식으로 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연구기관과 논의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우리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주시는 3년간 7656억원을 투입해 첨단산단의 자동차 전장 부품·복합금형 중심 산업, 하남산단의 차체·새시·금형산업을 육성하고 빛그린산단에 자동차 산업 협력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대법 최종 확정...안중범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프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판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

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지만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프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연합뉴스

홍남기 “기업투자 5.8조 신속 발굴”

경제 중대본회의...공공투자 60.5조 연내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5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연내에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반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야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위상에 맞는 역할 해야”

정상화 시민연대 논평 발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시민연대)가 11일 8기 조성위 출범에 대해 야문화에 명시된 조성위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8기 조성위원회 출범 관련 논평”에서 “다양성과 민주성이 실종돼 존재가 없이 활동에 마감했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7기) 조성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과 유관기관만의 협력 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와의 전면적인 협치를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 과정

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북법 시행 및 목표 기간의 5년 연장,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전당과 문화원으로 나누어진 조직 및 운영 체계의 일원화, 전당장의 소속한 선임, 시민협치·예술가의 참여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리 “8기 조성위가 청년·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민간위원의 부재가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7기 조성위에 비해 다양성과 민주성이 반영된 민간위원이 위촉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10개 업체 순위 평가

광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개 업체 순위를 매긴다. 광주시는 “이용객 중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개 업체의 버스 운행 데이터, 교통안전공단 운수 종사자 관리정보 시

스템, 시·구 행정 처분과 민원통계,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다. 평가 항목은 운행관리(250점), 안전성(450점), 고객 만족(300점) 등 3개 분야 10개다. 시는 이달 중 점수를 산출해 다음 달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원모집공고

당사는 도시디벨로퍼 자산개발(주)로써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모집부서	고용형태	우 대 조 건
사무직 (경력) 여 (나이 제한 없음)	정규직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자	컴퓨터

임금조건
근로기준법 준수(면담 후 결정)

모집기간
2020. 6. 11. ~ 17.(7일간)

제 출 처
SKK자산개발주식회사
광주 남구 노대동 853번지(농협건물 6층, 601호)
(본인 방문 접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참)

연 락 처
법무실 : 010-8602-0001

일침백약침술

침을 한번만 맞으면 백가지 약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불치통증, 각종 암, 노약자 중풍마비, 정력감퇴

금침을 놓아 단 한번 시도로 모든 병을 고치고 진짜 10년은 젊어지게 합니다.

010-8491-206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용택(490828-XXXXXX)
- 최후주소 : 순천시 황전면 내구길 100-1
- 등록기준지 :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 195번지

피상속인 망 박용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노단208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12일

- 상속인 : 1. 박비재(770214-XXXXXX)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7, 807동 1602호 (중흥에스프레스8단지)
- 2. 박용철(790305-XXXXXX)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43, 109동 803호 (남해오네브)
- 신고기간 : 2020. 6. 12. ~ 2020. 8. 21.
- 채권신고주소 : 상속인 1. 박비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송상열(461117-XXXXXX)
- 최후주소 : 광양시 광장로 70, 215동 2204호 (중동, 성호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7번지의 50

피상속인 망 송상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노단282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12일

- 상속인 : 최미자(651010-XXXXXX) 광양시 광장로 70, 215동 2204호 (중동, 성호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6. 12. ~ 2020. 8. 21.
- 채권신고주소 : 상속인 최미자의 주소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6. 23(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6. 16(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